

“광주형 일자리·도시철도 2호선·부동산 공론화로 이슈 선도”



김윤하 전남대 의대 산부인과 교수

전두환 재판 단독보도 큰 파장
미친 집값 르포, 투기 실상 생생



강대석 남도향토문화연구원장

취발유값 보도 독자에 유용한 정보
과속운전 합정단속 경각심 일깨워



이묘숙 미술평론가

보육시설 인권침해 심층보도 모델
별 받은 학부모 자녀교육 고민 제기

광주일보 제8기 독자위원회 17차 회의

10월 23일 광주일보 9층 회의실

광주일보 제8기 독자위원회 제17차 회의가 지난 23일 광주시 동구 광주일보 편집국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장필수 편집부국장 겸 김윤하 위원장을 비롯한 김남기, 강대석, 이묘숙, 조미옥, 이철갑 위원 등 본사가 위촉한 독자위원 6명이 참석했다.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관련해서는 광주일보의 보도가 선도적이었다. 이달부터 시작한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찬반 ‘팩트 체크’ 시리즈는 지역의 현안에 대한 해결의지와 언론의 사명을 잘 보여준 기사였다.

사회면의 기획과 편집이 좋은 궁합을 보인 사례도 있었다. 같은 날 보도된 ‘재치있는 경찰’과 ‘어이없는 경찰’(9월10일)은 독자의 눈길을 끄는 기획과 편집이었다. 하지만 지면 편집이 엇박자를 낸 경우도 더러 있었다. 1면 머리기사 ‘전통 시장 청년상인들 문 닫고 떠난다’(10월5일)는 기사와 전혀 관련 없는 방북 관련 사진이 함께 자리해 독자에게 혼란을 줬다. 사진기사를 적절히 배치하는 세심함이 필요하다.

◇이묘숙=사진기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겠다. 경제면의 경우 백화점에서 제공한 사진물이 자주 들어간다. 경제 관련 기사에서 중요도가 떨어지게 느껴지기에 광고나 협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유통’으로 분류된 지면에는 소비생활과 관련한 기사가 많기에 머리띠를 ‘소비자’ 등으로 바꿔보는 것을 권한다.

지난 달 27일 ‘광주 한 보육시설서 지속적인 학대 사달린 여대생 눈물의 하소연’을 처음으로 꾸준히 후속기사를 내고 있는 보육시설 인권침해 보도는 독자에게 큰 충격을 줬다. 개별 시설의 문제를 넘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다는 내용까지 알아내 심층 보도의 전형을 보여줬다. 독자로서 해당 취재자에게 상을 주고 싶은 마음이다.

문화계 종사자로서 예상을 내건 광주·전남의 갈등은 여전히 벌어보인다. ‘전남 콘텐츠산업 전국서 가장 열약’(10월8일) 등 기사를 보면 이를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민선 7기

가 내용을 문화정책에 이 같은 현실이 잘 반영되도록 지속적인 보도를 부탁한다.

광주·전남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 7500여 명이 특별교육을 받았다는 내용을 담은 ‘별 받은 학부모 7598명’(10월4일)을 통해서도 학부모로서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줬다.

◇조미옥=‘별 받은 학부모’라는 표현에서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었다. 자칫 학교폭력의 책임을 학부모에 떠넘기는 의도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상매매·사기·인신 감금...교육공무원 범접 수두룩’(10월16일) 보도 역시 표현이 다소 자극적이었다. 독자의 눈길을 끌더라도 기사를 왜곡할 수 있는 제목과 표현은 피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 말고도 올해 광주·전남 교육계는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얼룩졌다. 학생이 교사들의 성폭력을 폭로한 ‘스쿨미투’와 고교 시험지 유출 등 교육자 입장에서 부끄러운 일들이 많았다.

최근 나온 ‘이번엔 목포 사립고서 시험문제 유출 파문’(10월15일) 관련 보도의 경우 3차례에 걸쳐 후속 보도가 나갔다. 이들 보도는 사건에 구체적으로 접근했지만 교육현장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들여다보거나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반면 “스펙 부풀리자” 고교 교내수상 몰아주기(10월1일)와 ‘학교와 학생...스쿨존 과속 전남 1년새 2배 이상 급증’(10월5일), ‘광주·전남 학교 561곳 지진에 취약’(10월10일) 등은 지역 교육계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채찍질한 보도였다.

학생 역시 미래의 신문 독자다. 아이들이 올바르게 사건

조미옥 영암 신북중학교 수석교사



교내 수상·지진 취약 교육계 채찍질
교육현장 문제 대안도 제시했으면

김남기 서화가



민선 7기 성과 위해 언론 감시 필요
개발 등 미래 사안 꾸준한 관심을

이철갑 조선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장



광주형 일자리 지속적인 보도
목적한 메시지 광주일보 저력 느껴

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보다 심층적인 취재와 보도가 뒤따라야겠다.

◇김남기=지난 6·13지방선거를 치르며 광주일보가 특정 인물을 비판하는 기사가 눈에 띄었다. 광주·전남 민선 6기는 많은 공직자가 고생했겠지만 시민의 기대에는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다. 뒤를 이은 민선 7기가 몇 급질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광주일보의 끊임없는 감시와 대안 제시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어등산 개발’,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광주형 일자리’ 등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들이 줄을 잇고 있다. 광주일보도 대응적 차원에서 이들 현안에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취재·보도하길 바란다.

광주형 일자리 지면을 훑어보자면 허다 광고가 거슬리는 경우가 있다. 기사 내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상업적인 광고는 따로 배치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 시민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의 광고 게재에는 조금 더 신중했으면 한다.

◇이철갑=‘하나의 문제를 끝까지 판다’는 광주일보의 저력을 느낄 수 있는 현안이 있었다. 바로 ‘광주형 일자리’다. 10월 들어 광주일보는 ‘위기의 ‘광주형 일자리’’(10월1일) 등 관련 보도를 총 10여 차례 내보냈다. 소독주도 성상을 내건 문재인 정부는 ‘광주형 일자리’를 전국으로 확대 운영할 의지를 밝혔다. 이처럼 광주형 일자리는 정부 차원에서 높게 평가되는데 반해 광주시 자체는 개념 정립이 잘 되지 않은 눈치다. 노·사·민·정의 대타협을 전제로 출범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철학이 세워지지 않은 채로 좌고우면 하면 안 된다.

광주형 일자리는 딱 잘라 말하자면 ‘현대차 완성차공장 유치 사업’으로 귀결된다. 운영현 전 광주시장이 경제부시장에 가야차노조 광주지회장 출신인 박병규씨를 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난 10월 장필수 편집부국장인 ‘데스크시각-광주형 일자리 누가 발목 잡나’는 ‘광주형 일자리’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목적한 메시지를 담았다.

/정리=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일보 독자위원들이 지난 23일 편집국 회의실에서 김윤하 위원장 주재로 지면평가 회의를 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